



중국, 과보호 유류시장 내년 시험개방 유류부문 개혁가속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의 쟁점 중하나로 '과보호' 지적을 받아온 석유시장을 내년 중 시험 개방하는 등 유류부문의 개혁을 가속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일간 명보(明報)는 구랍 16일 중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 "내년 중 1~2개 시범 도시를 선정, 외국기업들에게 석유와 천연가스의 도소매업을 허용하는 등 중점보호해 온 유류 부문을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원 체제개혁판공실 산하 경제체제.관리연구소의 천리(陳立) 부소장은 "자격기준을 갖춰

거나 국내기업과 합자(合資) 등을 통해 유정 개발 등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시범지역에서 정유사업 투자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시범지역 후보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완제품 유류에 대해 69%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WTO 가입 후 6%로 대폭 내리고 완제품 유류의 쿼터장벽도 크게 낮출 계획이며 가입 후 5년 후에는 완전 개방할 방침이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쿼터 장벽 철폐시기를 3년 후인 2004년 1월1일로 보도했다.

한편 다이와 연구소의 업계 분석가인 케이스리는 중국이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데다 현지의 주요 업체들이 WTO 가입에 대비, 충실



한 대비책을 세워온 만큼 과당 경쟁 등에 따른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페트로 차이나 또는 중국석유화학(Sinopec) 등 굴지의 기업들은 생산량 증대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작업을 벌여왔다.

일,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재검토 움직임 부작용 최소화

일본은 지난 1995년 6월에 용기 및 포장을 이용 또는 제조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리사이클을 의무화 한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용기포장에 관한 분별 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EPR(확대생산자 책임)을 제도화 한 일본에서의 최초의 법제도였다

지난해 문제의 첫번째는 4월부터 의무 대상자가 중소기업과 대상도 종이 및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으로 확대되어, 이것에 의해 잠재적인 의무 대상자가 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시행후 지금까지 3년 간은 대상이 대기업, 용기포장은 유리병과 PET병에 한정되었다. 문제의 두번째는 근년 급격히 회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PET병에서 인수의 정비가 되 있지 않아, 지역에 따라서는 회수된 PET병이 보관장소에 산적하게 되는 사태가 생긴 시점이다.

이들 문제가 계기가 되어 제조자의 책임이 엄하지 않지 않은가, 법제도가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등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자체의 존재가 의문시되기 시작하여 후생성에서도 용기포장 리사이클 시스템 검토회에서 검토를 시작

하였다. 1995년 당시에는 세계에서도 선구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제도도 현실과의 대응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밝혔다. 5년의 경험을 살려서 보다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도의 고안 및 재검토 할 필요가 나오고 있다.

일, 미쯔비시 화학 PTA 감산 체제로 돌입 가격 상승 예상

일본 미쯔비시 화학이 감산 체제를 통한 중국내 PTA 시장의 타이트화를 불러오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PTA의 주요 수요자인 중국이 내부 재고 조정 등을 이유로 가격 하락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쯔비시 화학은 저가의 PTA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미쯔비시화학은 일본뿐 만아니라 한국과 대만의 PTA 생산업체와도 공동으로 감산에 협조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내 폴리에스터 섬유생산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폴리에스터 섬유의 주원료인 PTA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올패 PTA 세계시장은 타이트할 전망이다.

일본 통산성 화학과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의 2000년 상반기(4월~9월) 석유화학 매출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일본내 11개 에틸렌 업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고, 경상이익은 60.3% 증가한것으로 발표됐다.

일본내 에틸렌의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하기는 했지만, 관련 업체들의 사



업 재편 및 정비들을 통해 이익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 APP 2개 공장 영업실적 발표 Pulp 수익 증가

인도네시아 Asia Pulp & Paper(APP)의 2개 공장의 영업실적 발표가 있었다.

지난 9개월 동안의 실적에서 Pulp와 Paper 사업이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Pulp 제조회사인 PT Indah Kiat는 순이익 2억6천7백65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년초 8천9백59만 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에 Paper 회사인 PT Tjiwi Kimia는 3천4백28만 달러에 그쳤다.

년초대비 이익율을 살펴보면 Indah Kiat는 41.8%에서 42.8%로 상승한 반면 Tjiwi Kimiasms는 32.2%에서 21.3%로 하락하였다. Indah Kiat의 실적증가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달러화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상황에서 인니 루피화의 하락(년초 달러화 대비 25%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PVC가격 안정세 몇 주 동안 큰 변동없어

중국내 PVC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제조기업들이 제시하고 있는 PVC가격은 지난 주와 변동 없이 톤당 7백60에서 7백85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톤당 7백40달러로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해왔던 Tianjing Dagu, Tianjing LG, Jinxihuagong은 지난 주보다 톤당 10달러 이상 높은 수준에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PVC 판매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므로 제조비용에 도달했고,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시장을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 감산 등으로 재고를 줄여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내 5개 생산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수준도 약 4천톤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의 PVC시장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무역 및 도매상의 시장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자들은 수입량이 감소됨에 따라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상들은 한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오퍼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화동지역, 화북지역의 PVC 가격은 톤당 7백60에서 8백10달러 수준이며, 화남지역은 톤당 7백70에서 8백달러, 화북동지역은 톤당 7백60에서 7백8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

월간 포장계는 포장업계에 유익한
최신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및 광고 문약는
(사)한국포장협회 편집실로 해주십시오.

TEL. 021835-9041